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성, 사랑, 결혼

양혜원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사실 성, 사랑, 결혼은 그 각각이 다 방대한 주제인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의 출판 경향을 보면 과거에는 결혼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오다가 서서히 데이트를 다루는 책들이 좀 나왔고, 최근에는 성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이나 데이트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관계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서 부부간의 성관계가 다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성 자체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현상 두 가지는 성에서 영적인 의미가 제거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인간의 다른 욕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오늘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성삼위일체 대신에 나의 거룩한 욕구(wants)와 요구(needs)와 느낌(feeling)이라는 대체 삼위일체가 최고 주권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 올리버 벅은 오늘날 사람들은 “고정적인 성역할, 부르주아의 격언, 고정된 방식 등을 다 털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으로서 자기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남자이기 이전에, 여자이기 이전에, ‘나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욕구보다도 많은 금기와 제제를 받았던 성이 이러한 자아의 부상과 함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 사랑, 결혼은 각자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다양한 조합으로 교집합을 이루며, 특히 기독교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제시합니다. 저는 먼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이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지를 논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성

먼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은 단지 성관계나 생식기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전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네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들었을 때, 무엇이 제일 궁금합니까? 저는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제 머리 속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그 아이의 성별을 모르면 그 상상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의 성별을 묻는 것이, 남자에게는 우월한 가치를 그리고 여자에게는 열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성차별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별을 묻는 것이 썩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한 궁금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이라는 추상적 개념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구체적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면서 남자이고 인간이면서 여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아인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성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그러한 표현은 여러 가지 가치와 상징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성의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은 또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내가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동성하고 손을 잡을 때와 이성하고 손을 잡을 때 느낌이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도 성입니다. 성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사회마다 그것을 허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성간의 그러한 독특한 느낌을 느끼는 것마저도 금지하는 엄격한 성분리 정책을 실행하는가 하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독특한 느낌을 결혼과 상관없이 성관계로까지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루이스 스메디스는 [크리스천의 성](두란노 역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과 관련해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성에 대해서 하는 질문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하느냐 하는 것과 테이트 중의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입니다. 스메디스의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큰 주제 안에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은 또한 친밀감에 대한 인간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친밀함의 극치일 것입니다. 이 성적 친밀감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인간의 다른 모든 관계망이 극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심의 전통 사회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따라 이동을 시작하면서 개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화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또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공동체를 잃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성적 관계는 그러한 확인과 지지를 받는 통로로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성에는 평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기존의 권력 관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성을 돈으로 사거나 상대방을 착취하는 경우가 아닌, 친밀한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성은 두 사람의 지위를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결혼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나이 차이를 초월합니다. 연장자가 대우받는 유교 국가의 경우도 나이 차이가 십년이 나는 커플이 부부로 살게 되면 서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제 남편이 저보다 4살이 많지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하게 느꼈을 그 나이 차이를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종이 다른 부부 관계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월하게 대우받는 인종이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인간으로 만드셨기에, 두 사람은 대등한 사랑과 대등한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2. 사랑

사랑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방식은 상호 복종입니다. 바울의 가정훈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5장 21절-6장 4절까지의 말씀 (물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6장 9절까지가 포함되겠지만)의 대전제는 5장 21절입니다. 개역성경이 22절부터 문단 구분을 해놓아서 오해가 많은데, 성경 원문에는 21절과 22절 사이에 단절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비록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이라는, 성별에 따른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앞에서 말한 대전제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고정된 성역할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는 아내의 손길에서 남편이 사랑을 느낀다면, 일하러 나가는 아내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는 남편의 손길에서 아내도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서로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됩니다. 나의 성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강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3. 결혼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결혼이라는 제도만큼 지탄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 제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이혼율과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특히 가족을 희생하고라도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자들이 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결혼 제도는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며, 사실은 남자도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거나 계약 결혼 등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실험을 합니다. 기독교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서서 그 관계를 평생 유지한다는 결혼 제도의 기본 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결혼 제도도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내게 특별하고도 유일한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평생을 산다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원래 결혼에는 사랑보다는 의무의 요소가 더 많았습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적자를 낳는 것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결혼의 기초였습니다. 결혼이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지위는 중요한 사회적 신분이고,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해주는 가족은 세금과 복지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결혼 안에 사랑이 없음에도, 이러한 제도적 편익과 신분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고정된 성역할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더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 동거를 하거나,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심리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

전히 헌신된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실험적으로 미리 살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든 계약 결혼이든 그 안에서 자녀가 생기고 그 관계가 길어지면 어느 정도 기존의 결혼의 모습과 많이 닮아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결혼에서 영적인 의미가 제거되고 오로지 세속적 의미만 남은 결혼은 정도의 편의 때문에 이용되거나, 안정과 만족을 누리고픈 남녀들의 끊임없는 실험으로만 남게 됩니다.

4. 성, 사랑, 결혼

각 항목을 설명하면서 조금씩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성, 사랑, 결혼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없는 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이 비인격적으로 매매되거나 거래될 때 사랑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욕구 해소 차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두 남녀가, 복잡한 정서적 관계에 얽매이기는 싫지만, 계속해서 생기는 생리적인 욕구는 해결해야겠기에, 서로 필요할 때 만나서 섹스만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만나서 섹스를 하다보니까 서로 감정이 얽히게 됩니다. 그것이 불편해지면서 그 관계는 끝나고 맙니다. 후일담 식으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남녀는 그것이 그냥 섹스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이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회가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로 인류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물론적 입장을 계속 주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성은 결혼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성이 오로지 자녀 생산의 수단으로만 이해될 때 결혼 안에서도 성은 도구화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정실부인하고는 오로지 자녀 생산을 위한 섹스를 하고, 즐기는 섹스는 첩이나 기생이랑 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는 여자를 정숙한 여자와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이원화해서 보는 관점도 작용합니다. 정숙한 여자는 성에 대해 무지하고, 성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직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모성적 본능에 의해서 잠시 참고 그 관계를 견딜 뿐이라고 하는 믿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때 성이 없는 사랑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때 결혼한 귀부인은 자기를 열렬히 흠모하는 기사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육체의 연합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있어도 성이 없는 결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도 낳을 만큼 낳았고, 결혼 연수도 오래된 부부들이 성관계 없이 그냥 기능적인 부부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디처럼 육체적 정욕을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결혼 관계 안에서 정절을 선언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자녀를 이미 몇 명 낳은 뒤의 일이라는 합니다.

이처럼 성, 사랑, 결혼은 서로 다양하게 결합하면서 변화합니다. 이러한 조합들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며 영구적이기보다는 상황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다가 어느 날 사랑이 시

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섹스만 하던 상대에게서 어느 날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기는 했지만 사랑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고 섹스도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 안에 성과 사랑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와 부부가 나누는 것과 같은 배타적 사랑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하지만 내가 아내나 남편과 함께 나누고 가져야할 배타적 시간을 이웃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우정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부모님의 동의하에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공식을 대체로 따르기 때문에 성, 사랑, 결혼이 함께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상 우리의 결혼이 사랑으로 살아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주저함 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성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은 상당부분 문화적으로 결정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자와 외모가 예쁜 여자가 가장 빨리 결혼을 합니다. 소위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빨리 파트너를 얻는 것이지요. 또 파트너 선택의 기회도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남자의 신앙보다 그의 탄탄한 직장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자의 신앙보다 감쪽한 그녀의 외모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난관을 뚫고 하나님을 믿는 남녀가 사랑을 하고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의 난국은 주체하기 힘든 성욕입니다. 데이트 중에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교제하는 커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삽입 성교를 기준으로 순결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한 루이스 스메디스는 이 점을 잘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스로 삽입하는 단계를 피했다고 해서 자신은 성교를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켰다고 이야기한다면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에 이 난관도 뚫고 지나왔다면, 한국 사회에서 꼭 걸리는 것이 부모님의 허락 문제입니다. 두 남녀가 교회에서 만났고 신실한 사람들인데 소위 기독교 집안인 남자 쪽 부모님이 상대 여자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결혼을 반대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세력이 되고 나니 기독교 집안 출신도 하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로 집안은 장로 집안끼리, 목사 집안은 목사 집안끼리, 하는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유교 문화의 가치와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난관을 헤치고 결혼한 남녀가 막상 결혼 안에서는 서로 대등한 사랑을 하기 보다는 남녀 간에 유교적인 종속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성역할에 충실한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전 성교나 혼외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형식은 잘 지키지만 그 안의 내용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온통 유교적이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하고 복종합니까? 아내를 대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자기 임의로 일을 결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자들은 순종을 미덕으로 알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뜻을 잘 굽히고 수용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칫하면 거짓 겸손으로 나타나고 시기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 거룩한 갈망](IVP 역간)의 저자 리사 맥

민은, “여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술책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목소리와 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가부장제만큼이나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여자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목소리와 권력을 회복하도록 선도해 간다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나는 아마도 권력을 쥐어 교묘한 술책으로 남성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 결과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의 가정훈이 기존의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지침으로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처럼 우리의 성교 사랑과 결혼이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다면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동침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동침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일부다처제를 바로 뜯어고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감당할만한 정도의 규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재산 정도로 여겨지던 시대에 여자를 함부로 버려서 그를 거리의 여자로 만들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혼 서류를 써주게 함으로써 여자의 신분을 보호해주신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여자들이 여전히 재산으로 혹은 남자의 왜곡된 변형 정도로만 이해되는 신약 시대에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혁명적 선언을 했고, 당시에 예수 믿는 여자들이 너무 해방되어 오히려 주변 사회의 지탄을 받을까 두려워 여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은 해소해야 하는 욕구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이며, 사랑은 한 사람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가꿔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으며, 결혼은 편의 상 혹은 좀더 고상한 의미를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시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교 윤리에 입각해서 여자의 순종은 이야기하되 남자의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으며, 자녀의 복종은 이야기하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한국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